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4. 담화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면 ‘행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가 된다. 이처럼 문장에 목적어 ‘그림을’이 포함된다.

③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를 ‘그’가 주어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용광로에서 쇠를 녹였다.’가 된다. 바뀐 문장은 사동문이다.

④ ‘외삼촌이 이삿짐을 옮겼다.’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사동문이다. 하지만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⑤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와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의 ‘그려졌다’, ‘녹여졌다’는 용언 어간에 ‘-어지-’가 결합된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 06 인용 표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시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오늘 자기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고 했다.’가 된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직접 인용에서의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에서 ‘오늘’로 바뀌었고, 직접 인용에서의 인칭 표현 ‘나’가 간접 인용에서 ‘자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간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인칭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인칭 표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시간 표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시간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인칭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부정 표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8 언어

본문 79~82쪽

- 01 ①                      02 ⑤                      03 ④                      04 ①
- 05 ③                      06 ④

### 01 통일성, 응집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소년’은 뒤 문장에서 ‘그’로 재사용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대명사 ‘그’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 ‘그’가 붙은 ‘그 소년’도 수용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이거’는 ‘휴대 전화’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앞에 나온 ‘휴대 전화’가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된 것이다.
- ④ 앞 문장에 나온 ‘강릉’을 뒤 문장에서 ‘거기’로 대체한 것으로, 이때 수용어인 ‘거기’는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를 재사용하는 말이 생략된 문장이다.

### 02 통일성, 응집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손톱’은 ‘손’의 하위어가 아니다. ㉞은 ‘손톱’과 ‘손’이라는 부분-전체 관계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피부’와 ‘살갓’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친구’와 ‘벗’이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볼’과 ‘얼굴’이 부분-전체 관계를 이루는 것에 기대어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강아지’가 ‘동물’로 재사용된 것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어인 ‘동물’이 하위어인 ‘강아지’의 뒤에 오고 있다.

### 03 담화의 종류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동생이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는 우유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진열장의 상품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이’가 지시하는 대상은 친구와 함께 들고 있는 음악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그’가 지시하는 대상은 딸 옆에 있는 가방이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⑤ ‘거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04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현수’의 첫 번째 말에서 ‘우리 동아리’는 이들이 속한 수학 연구 동아리를 가리키고, ‘영훈’의 두 번째 말에서 ‘우리 반’은 ‘영훈’의 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현수’, ‘영훈’, ‘용찬’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영훈’의 반을, ㉣은 ‘용찬’의 반을 가리키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은 ‘용찬’과 ‘현수’를 가리키고, ㉥은 ‘영훈’과 ‘현수’를 가리킨다.
- ④ ㉦은 ‘영훈’이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이지만, ㉧은 ‘용찬’이 자기 반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⑤ ㉨은 ‘용찬’과 ‘현수’를 가리키고, ㉩은 ‘영훈’과 ‘현수’를 가리킨다.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과 ㉡이 가리키는 인물은 모두 ‘주원’의 어머니나, ㉢이 가리키는 인물은 ‘외할머니’이고 ㉣이 가리키는 인물은 ‘주원’의 엄마 본인이므로 ㉢과 ㉣이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보람)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주원)의 관계

를 고려하여 자신의 엄마를 ‘외할머니’로, ㉡은 화자(‘외할머니’)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주원)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딸을 ‘엄마’로 지칭한 것이다.

② ㉠과 ㉡은 둘 다 ‘보람’을 가리킨다. ㉢은 화자가 ‘외할머니’이어서 ‘우리 딸’로, ㉣은 화자가 ‘주원’이어서 ‘이모’로 표현된 것이다.

④ ㉤은 ‘외할머니’가 손자를 호칭하면서, ㉥은 언니가 동생을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다.

⑤ ㉦의 화자는 ‘외할머니’이고 ㉧의 화자는 ‘주원’으로 서로 다르지만, ‘외할머니’가 ‘주원’에게 ‘주원’의 엄마를 지칭하는 말과 ‘주원’이 자신의 엄마를 호칭하는 말이 둘 다 ‘엄마’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06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애들아,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는 행위를 지시하면서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종결 표현이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밖에 비 오네.”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우산을 챙겨 갈 것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 ② “저거 안 보이세요?”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조용히 하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 ③ “지금 슈퍼 문 열렸는지?”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슈퍼에 가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 오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 ⑤ “저 여기서 내립니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는 자기가 하차할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것이므로 직접 발화의 예로 보기 어렵다.

언어 08

담화

본문 81~84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①

01 담화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서 ‘의미 2’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날씨가 더우면 음료수를 사 마시자고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화의 의미는 ‘음료수를 사 마시자.’라는 의미로 확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도 발화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날씨가 덥네.”라는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날씨가 덥네.”라는 발화에 대한 의미가 3개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의미 1’과 관련하여 일기 예보를 화자와 청자가 함께 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본 일기 예보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및 공감을 의도한 발화일 수도 있으나 만약 화자가 혼자 일기 예보를 본 상황이라면 청자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의미 3’과 관련하여 만약 화자와 청자가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가 있다면 ‘선풍기를 켜라.’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와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라는 문장의 유형은 명령문으로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엄마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줄 것을 재촉하는 것은 명령의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엄마, 저 빨리 밥 주세요.”라는 문장의 유형인 명령문과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② 내일 국어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발화의 의도와 “내일 국어 수업이 몇 교시이지?”라는 문장의 유형은 의문문으로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자녀에게 잠에 들 것을 권유하는 것은 발화 의도가 명령에 해당하나,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므로 간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틀린 문제를 학생에게 다시 풀어 볼 것을 권유하는 것은 발화 의도가 명령에 해당하나,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므로 간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03 지시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지우개이다. 이는 앞서 말한 내용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해당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지난번에 만났던 ‘거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어제 먹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식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어제 쓰고 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보고서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저번에 말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의상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담화의 응집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디메틸설파이드’를 가리키며, 이 표현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식물 플랑크톤’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 전반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그런데’는 ‘구름을 이루는 성분 대부분이 물이라는’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뒤 내용을 이끌어 나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이때’는 앞에서 진술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

체 상태의 물방울이 될 때'를 가리키며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글의 경제성을 높이고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는 앞서 언급한 '이것(디메틸설파이드)'이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대응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자인 외숙모가 자신의 딸의 입장에서 청자와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도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채윤의 입장에서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사촌 동생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과 ㉣은 채윤의 엄마를, ㉤과 ㉥은 채윤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숙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각각 엄마, 채윤으로 달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은 화자인 채윤이 자신과 외삼촌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고, ㉩은 외숙모가 청자인 채윤과 자신의 남편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06 담화의 특성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인데 '매일'은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네'와 '이쪽'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네가 이쪽으로 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③ '지금'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세 시간 동안'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④ '여기'가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미국에 가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⑤ '이런'이 직시 표현이므로 '이런 식으로'는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언어 09

국어사

본문 85~89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 01 어휘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술지다'는 '술'과 '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연결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어간들만이 어근으로 쓰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검붉다'는 원순 모음화를 거치며 현대 국어의 형용사 '검붉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② '뽀눕다'는 'ㅈ'을 'ㅊ'으로 표기하게 되고, 다시 'ㅊ'을 'ㅍ'으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현대 국어의 동사 '뽀눕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④ '딛먹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찍어 먹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⑤ '도콧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좃거나 굶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와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 모두 '도흐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도흐다'는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서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ㄹ마래 아니 그출썸'에서는 '그츄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닐웨예 닐굽 쇠줄 그쳐'에서는 '그츄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光明이 두루 비취더시니'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光明이 世界를 스뵈 비취샤'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마스미 여르샤 道를 得호시니'에서는 '열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큰 마스물 여러 쯤

**언어 08** 담화 / 국어사 ① 본문 | 74~78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⑤**

**01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⑤은 대용 표현으로, 그보다 뒤의 발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가리킨다. 하지만 ②은 그보다 앞의 발화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으로, ⑤의 뒤에 이어진 발화, 즉 ‘높은 데 있는 선반들에는 잎이 늘어지는 작은 화분을 두는 거야.’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선반을 놓을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고, ㉢은 ‘꿈담 카페’라는 공간 전체를 가리킨다.
- ② ㉠과 ㉡은 ‘학생 1’이 처음에 선반을 놓으려고 했던 지점이고, ㉢과 ㉣은 ‘학생 2’의 말에 따라 ‘학생 1’이 선반을 설치한 지점을 나타낸다. ‘학생 1’은 직접 선반을 들고 있으므로 두 지점을 모두 ‘여기’라고 했고, ‘학생 2’는 그보다 떨어진 곳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두 지점을 모두 ‘거기’라고 했다.
- ③ ㉤은 앞서 말한 ‘학생 2’가 발화한 ‘여기를 ~ 갈아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라는 대용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④ ㉥에서는 화자인 ‘학생 3’과 청자인 ‘학생 1’, ‘학생 2’가 대화 중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인 화자가 선반을 설치한 지점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여기’와, 화자가 설치한 선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 ‘이렇게’를 사용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고 있다.

**0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A]의 ㉣는 간접 발화로 말하는 내용에 담긴 의도와 문장의 종결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에 ①은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도를 ‘주십시오’와 같이 명령형의 하십시오체로 발화한 것이므로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혼자서 짐을 옮기기가 무거우니 같이 들어 달라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③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질문이 아

니라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다.’라는 생각을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④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열어 놓은 창을 좀 닫아 달라는 명령 또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⑤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발화이지만 내용은 조용히 하라는 명령 또는 요청의 의도를 담고 있다.

**03 담화의 통일성, 응집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은 문장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글 전체의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므로 ㉢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러분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과 ‘학습 자료들’이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서 이를 가리키는 말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생략을 통해서도 정보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접속 표현이다.
- ④ ㉤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정원사’를 모집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주로 해당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⑤ ㉥는 학생회를 나타내는 ㉠와 학생회가 아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나타내는 ㉡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04 국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가)의 ‘ㄹ스·ㄹ’이 (나)에서 ‘ㄹ으ㄹ’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가)의 ‘슬·후니’가 (나)에서 ‘슬호니’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ㄹ-ㄷ’를 ‘ㄹ-ㅂ’로 고쳐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반치음이 소실되어 표기에 쓰이지 않은 것(㉣)을 (가)의 ‘슬·후니’가 (나)에서 ‘슬호니’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가)의 ‘ㄹ스·ㄹ’이 (나)에서 ‘ㄹ으ㄹ’로 표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ㄷ-ㄹ’을 ‘ㄷ-ㄷ’로 고쳐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ㄷ-b’는



- ‘c-c’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l-c’는 ‘l-b’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c-b’는 ‘c-c’로 고쳐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r-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c-a’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⑤ ‘l-a’는 적절하여 고쳐 연결할 필요가 없다. ‘c-a’를 추가로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05 국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근대 국어의 ‘이시니’는 현대 국어에서 ‘있으니’로 풀이됨을 알 수 있다. 근대 국어 ‘이시니’나 현대 국어 ‘있으니’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이 → 사람이’, ‘주인이 → 주인이’를 통해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② 근대 국어에서 ‘사르미’, ‘쥬이니’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서도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언과 주격 조사를 구분하여 끊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③ ‘다리를 → 다리를’, ‘머리를 → 머리를’을 통해 근대 국어 ‘를’, 현대 국어 ‘를’은 모두 목적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근대 국어 ‘형동의’에서 ‘의’는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 ‘의’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09	담화 / 국어사 ②	본문   79~83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1 담화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런’)은 화자(손님)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진 속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그런’)은 먼저 머리를 자른 다음에 파마를 하겠다는 화자(‘미용사’)의 발화 맥락상 머리를 자르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렇게’)은 화자(손님)가 가리키는 스마트폰의 인물 사진 속 곱슬곱슬한 단발머리 모양을 청자(‘미용사’)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이’)은 화자(‘미용사’)가 가리키는 사진 속 인물의 머리 길이를 청자(손님)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그럼’)은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화자(‘미용사’)가 곱슬곱슬한 단발머리를 하고 싶다는 ‘손님’의 앞 발화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다. ㉢(‘그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화자(‘미용사’)가 머리 모양이 자신에게 어울릴지 묻는 ‘손님’의 앞 발화에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 ④ ㉢(‘저’)은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거나 곤란하여 머뭇거릴 때 쓰는 말로, 화자(손님)가 머리 모양이 자신에게 어울릴지 고민하는 말을 꺼낼 때 쓰였다. ㉠(‘저’)은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화자(손님)가 청자(‘미용사’)를 상대로 자기를 낮추어 가리킬 때 쓰였다.
- ⑤ ㉢(‘그런데’)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로, 화자(손님)가 화제를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싶다는 앞의 발화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곱슬곱슬한 단발머리 모양이 자기에게 어울릴지에 관한 고민으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02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찾아오시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시각 자료인 ‘약도’를 활용하고 있다.
- ② (나)의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이다’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비롯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수를 먹(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결혼하는 사람, 결혼식 일시와 장소,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방법 등)를 제공하는 기능과, 초대

받은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할 것(‘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을 요청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④ (나)에서 외국인인 ‘마이크’가 자신의 결혼식에 그를 초대하려는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이다’라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3 담화의 특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거기’는 앞에 나오는 ‘부산’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대용 표현인 ‘거기’는 ‘거기에’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어인데 대용 표현이 대신한 말인 ‘부산’은 ‘부산을’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 앞에 나오는 ‘홍길동’을 대신할 만한 말인 ‘그는’ 따위가 ‘(그는) 거기서 학교에 다닐 것이다.’와 같이 생략되었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참고로 ‘거기’는 앞에 나오는 ‘서울’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 ‘차’는 ‘트럭’의 상위어로, 앞에 나오는 ‘트럭’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 04 문법의 변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리로소이다’와 ‘일입니다’를 비교해 보면, ‘이리로소이다’의 주어는 ‘生老病死’이고 ‘일입니다’의 주어는 ‘생로병사가’로 둘 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아니다. ‘이리로소이다’에는 청자를 높이는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王께’와 ‘왕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께’와 형태는 다르지만 객체를 높이기 위한 조사 ‘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슬보덕’와 ‘아뢰기를’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아뢰다’처럼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로 ‘슬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듣좁고사’와 ‘듣고서야’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호쇼셔’와 ‘하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의 ‘-십시오’처럼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 ‘-쇼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5 어휘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중세 국어의 ‘어엿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ㅅ’의 영향으로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ㅂ’이 된소리가 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어여쁘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하고 가련하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아름답고 곱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의미의 확대는 주로 단어가 다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하므로, ‘어여쁘다’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세 국어의 ‘똥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으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쫄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서의 용법과 ‘좋아지다, (병이) 낫다.’의 의미를 갖는 자동사로서의 용법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의 의미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사오납다’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오’가 탈락하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납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좋지 않다, 질이 낮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세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의 ‘스랑ㅎ다’는 중세 국어의 단모음 ‘ㆍ(아래아)’가 소멸하는 음운 체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현대 국어에서는 ‘사랑하다’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는 ‘생각하다.’와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의 두 의미를 가졌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의 의미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의미 영역이 원래보다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의 ‘너름’은 근대 국어 시기에 반모음 ‘j’ 앞에서 ‘ㄴ’이 탈락됨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는 ‘여름’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고, ‘한 해의 네 철 가운데 둘째 철.’이라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 02 높임 표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에서 사용된 ‘있다’의 높임 표현인 ‘계시다’는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부사어는 ‘할머니께’로,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를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③ ㉢의 ‘맑으시다’는 ‘할아버지’의 소유물인 ‘책’을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는 ‘진지’, ‘드리다’, ㉤에서는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⑤ ㉠, ㉢의 ‘드리셨다’, ‘맑으시다’에는 모두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다.

## 03 시제-과거 시제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았-/-었-’만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은 ㉡, ㉢이다. ㉣: ‘-았었-/-었었-’을 통해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에는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은 ㉤이다. ‘전화가 왔었다’는 과거에 전화가 왔던 것을 의미할 뿐, 현재에도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았었-/-었었-’을 통해 과거의 일을 표현한 문장으로 <보기 1>에서 ㉡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에서 ‘있었다’는 동사 ‘있다’에 ‘-었-’이 결합된 표현으로 ‘-았었-/-었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았-/-었-’을 통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확실시되는 미래의 일을 표현한 것이므로,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에 사용된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의 회상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는 표현이므로 ㉤은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즉 ‘-대’에는 회상의 ‘-더-’의 의미가 없으므로 ㉤은 ㉢에 해당하는 예문이 아니다.

⑤ ㉣에서 ‘있었다’는 동사 ‘있다’에 ‘-었-’이 결합된 표현으로 ‘-았었-/-었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04 피동 표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주어지다’는 ‘주-’에 ‘-어지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주다’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답기다’는 ‘답-’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쌓이다’는 ‘쌓-’에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사로, ‘쌓다’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로 만들 수 없고 ‘쌓게 하다’처럼 장형 사동만 만들 수 있다.

④ ‘믿기지 않다’에서 ‘-지’는 ‘않다’ 앞에서 사용되는 연결 어미이다. ‘-기-’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할 경우 ‘믿겨지지 않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⑤ ‘준비되다’는 명사 ‘준비’에 접미사 ‘-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사이다.

## 05 부정 표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밥을 남기지 마세요.’는 ‘-지 말다’를 사용한 명령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안 하려고.’의 ‘안 하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단순 부정이 아니라 의지 부정이다.

② ㉢의 ‘안 왔으면’은 ‘왔으면’의 단순 부정이다.

③ ㉣의 ‘아니 땀’은 부정 부사 ‘안(아니)’이 사용된 짧은 부정이다.

④ ㉤의 ‘못 해!’는 능력 부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 표현이다.

**언어 08**

본문 243~246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①

## 01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내립시다.’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상황에서는 청유의 의미가 아니라 ‘내려야 하니 비켜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답은 ‘자리가 (비어) 있다.’와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②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나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맞서 싸울 때에는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데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③ ‘우리 어린이’에서 ‘우리’는 ‘우리 같이 가자.’에서처럼 1인칭 대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상(청자인 ‘어린이’)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④ '-르 수 있어?'는 A의 발화에서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B의 발화에서는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02 담화의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접속 표현에는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나 ㉡의 접속 표현에는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은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은 '수현이는 작은 호텔의 요리사다. 작은 호텔이라서 요리사의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현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의 '그래서'를 '따라서'로 바꾸어도 '규모가 작아도 호텔의 요리사라서 솜씨가 좋을 것이다.'가 함축되고, ㉡의 '그래서'를 '따라서'로 바꾸어도 '작은 호텔의 요리사는 솜씨가 좋지 않을 것이다.'가 함축되어 '그래서'일 때와 각각의 함축 내용은 동일하다.
- ⑤ ㉠과 ㉡에서는 '그러나'를 사용하여 수현이의 경우는 앞 문장에 함축된 내용과 상반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것, 저것, 그것'은 지시 대명사이지만 '이것이 제법 심부름을 잘해요.', '이것은 컴퓨터이다.'에서처럼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이, 저이, 그이'는 '이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처럼 지칭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호칭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②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용될 수 있고,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이쪽, 저쪽, 그쪽'은 '이쪽은 내 동생이야.'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어(삼인칭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고, '이쪽으로 달려왔다.'처럼 지시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
- ⑤ '이쪽저쪽, 여기저기'는 명사이지만,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04 통일성, 응집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그 소식'은 동아리 '방송 출연 섭외' 관련 소식으로 뒤에서 나

올 말을 가리킨다.

㉡ '이런 말'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뒤에 나오는 속담을 가리킨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의 '그게'에 포함된 '그것'은 은수의 발화 이전에 재경이가 말한 '그 소식'을 가리킨다.

㉡ '그렇게'는 '기다리다'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그게'에 포함된 '그것'은 은수의 발화 이전에 재경이가 말한 '방송 출연 섭외' 소식을 가리킨다.

05 경어법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예문 ㉠은 간접 높임이 사용된 경우로, 교장이 교사 및 교사와 관련된 대상(자녀)을 높이고 있다. 교사의 딸의 나이가 화자보다 어리더라도 교사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사의 딸을 높이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공식적인 상황에서 친구가 '제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사용하여도 친구 사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는 청자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청자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생님은 학생들과 친밀하고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지만, 수업 시간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청자가 화자의 선배이고, 청자보다 나이도 많지만 친밀도를 따져 청자를 높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청자를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표현이 모두 '높임 표현'에 포함되므로 해당 문장의 화자도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 09

본문 247~250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1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있'은 '有'의 뜻, '어'는 '魚'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따라서 ㉠, ㉡이 되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둘'은 '二'의 뜻, '이'는 '二'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문법 08

본문 229~233쪽

- 01 ①
- 02 ②
- 03 ②
- 04 ③
- 05 ④

01 맥락에서의 단어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취직자리가 나다’에서의 ‘나다’는 ‘구하던 대상이 나타나다’, ‘사과가 나다’에서의 ‘나다’는 ‘농산물이 산출되다’의 의미로 두 맥락에서 모두 ‘나다’는 ‘생기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상속하다’는 ‘재산을 이어 주다’ 혹은 ‘이어받다’의 의미이다. ㉠은 ‘유산을 이어받다’, ㉡은 ‘유산을 이어 주다’로 해석되므로 동일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이다.
- ③ ‘대출하다’의 의미는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다’이다. ㉠은 ‘책을 빌리다’, ㉡은 ‘책을 빌려주다’로 해석되므로 동일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이다.
- ④ ‘앞’은 ‘이미 지나간 시간’ 혹은 ‘장차 올 시간’을 의미한다. ㉠의 ‘앞’은 ‘미래’, ㉡의 ‘앞’은 ‘과거’로 해석되므로 동일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이다.
- ⑤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남에게 돈을 빌려 받을 진 사람’을 의미한다. ㉠은 ‘돈을 빌려준 사람’, ㉡은 ‘돈을 빌려 받을 진 사람’으로 해석되므로 동일한 단어가 맥락에 따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이다.

02 대용의 개념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2)의 담화에서 ‘분’과 ‘당신’은 모두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분’은 뒤 문장에서 언급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 문장에서는 앞에 나오는 ‘할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그녀’는 앞 문장에서 언급한 ‘공주님’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 표현이다.
- ③ (3)에서는 ‘트럭’이 ‘차’와 연결되어 응집성을 형성한다. ‘트럭’은 ‘차’에 속하는 단어이므로 ‘차’와 상하 관계에 있으며, ‘차’의 하위어이다.
- ④ 보통 명사 ‘나무’를 뒤에서 다시 ‘나무’로 언급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형성하고 있다.
- ⑤ (5)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의 맥락을 통해 ‘동생’

이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나’는 ‘지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03 지시어의 활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해당 발화에서 ‘여기’는 ‘여기에’로 교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칭’이 아니라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장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 발화에서 ‘저’는 말을 꺼낼 때 사용하는 감탄사이다.
- ③ ‘점때’는 과거의 어느 때를 의미하므로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이 발화에서 ‘그쪽’은 이 말을 듣는 청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 ⑤ 이 발화의 ‘이쪽’은 ‘우리 쪽’을 의미하므로 화자와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04 담화에서의 사전 지식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2학년 때 한국사 선생님’이 누구인지 청자(경호)가 알 것이라는 화자(주영)의 가정과 ‘2학년 때 한국사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청자의 사전 지식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없이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화자(규리)는 청자(지호)가 ‘은기’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청자는 ‘은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따라서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사전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화자(민주)는 청자(정수)가 ‘현우’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 중에 현우라는 애가 있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청자는 현우를 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는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사전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05 함축의 이해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2) B의 마지막 발화는 진실이 될 수 없다. 랩과 노래를 하는 강아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B의 발화가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이유는 A의 발화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한 B의 발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므로 '대화 화제와 관련성이 없는 답'은 적절한 내용이다.
- ②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로 대화 화제를 바꾸었다.
- ③ 현수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한 B의 발화는 A로 하여금 대화 화제를 갑자기 바꾼 것에 주목하게 하여 A에게 '그 이야기는 그만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강아지가 랩과 노래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A의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법 09

본문 234~237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③

05 ①

### 01 사실의 이해

답 ②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양성 모음 3개(으, 오, 아)와 음성 모음 3개(으, 우, 어)가 존재했다. 그에 비해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는 양성 모음 2개, 음성 모음 8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가 각각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3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4문단과 5문단에 의하면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세력도 중세 국어보다 약하고 예외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각각 3개로 동일하지만, 4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는 양성 모음 2개, 음성 모음 8개로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각각 혀를 움츠리거나 조금만 움츠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4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 오면서 이러한 공통점들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으' 또는 '오', '오' 또는 '우',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모두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

는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어미가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02 모음 조화의 적용 결과 추론

답 ①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막-'의 모음 'ㅏ'는 양성 모음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들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와 '-어' 중에서는 '-아', '-옴'과 '-음' 중에서는 '-옴', '-으니'와 '-으니' 중에서는 '-으니'가 양성 모음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적용된 올바른 형태는 '마가, 마곰, 마ㄴ니'가 된다.

### 03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답 ②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맛디다'는 현대 국어의 '맡기다'에 대응하는 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라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겨샤'는 동사 '겨시다'의 활용형으로 현대 국어의 '계시다'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쓰인다.
- ③ '즈갓'은 주어인 '보살'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즈가'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된 형태이다.
- ④ '오스란'은 '옷'에 보조사 '으란'이 결합된 것으로 문장 안에서는 벗는 행위를 나타내는 '뵈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물와'는 이 문장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접속 조사 '와'만 나타나고 목적격 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04 객체 높임의 기능 파악

답 ③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아버지'는 '돌보셨다'의 주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경우 목적어인 '할머니'가 객체이자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하게 된다.

####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 '할아버지'는 '보았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의 '부모님'은 '걸었다'의 부사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④ ㉢의 '선생님'은 '찾아갔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서술어이다.

- ③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 ④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 주는 데에 쓰이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 03 문장 성분의 종류 파악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⑥은 서술어이다. ㉔ 역시 본용언 ‘일하다’와 보조 용언 ‘싶다’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과제’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로서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이다.
- ② ㉒은 ‘발표하는’을 꾸며 주는 부사어로서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이루어져 있다.
- ③ ㉓은 서술어 ‘바라는데요’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어떤 사람이 되기’는 ‘(선배는) 어떤 사람이 되기’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보여와 서술어가 있는 절인데, 명사절로 안겨 있다. ㉓은 이 명사절에 다시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것이다.
- ⑤ ㉕은 문장의 다른 부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이다.

### 04 피동문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발을 밟혔다’는 수지가 당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동문인데 목적어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기를 안겼다’는 ‘그 형’이 ‘진희’에게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돌을 옮겼었다’는 ‘명호’가 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타동사가 쓰인 능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상해를 입혔다’는 ‘그 사람’이 ‘형’에게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간격을 넓혔다’는 ‘동주’가 ‘책상’에 가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동문이므로 ㉑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05 부정문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안’ 부정문이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 대상이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단순 부정(객관 부정, 중립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㉑은 ‘해’가 의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부정으로 해석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㉒에서 ‘있다’를 부정하기 위해 짧은 부정의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없다’라는 별개의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책상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처럼 긴 부정의 ‘안’ 부정문은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㉓은 상대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 즉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에는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짧은 부정이든 긴 부정이든 사용되지 않고, ‘말다’의 긴 부정만이 사용된다.
- ④ ㉔은 ‘알다’의 부정이 별개의 어휘 ‘모르다’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알지 못하다’와 같은 긴 부정의 ‘못’ 부정문에서만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 ⑤ ㉕은 ‘넉넉하다’가 ‘-지 않다/못하다’의 긴 부정으로 부정됨을 보여 주고, ‘안’이나 ‘못’이 꾸며 주는 짧은 부정으로는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문법 08

본문 261~264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①    05 ③

### 0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손님’의 발화 의도는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손님’이 “다음에 올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오겠다고 약속하는 의도로 발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가게를 나가면서 점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의미로 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원’이 ‘손님’의 발화 의도를 다음에 온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고 “다음에 오시는 약속은 언제로 잡을까요?”라고 물은 것은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객 2’는 ‘관객 1’의 발화 의도를 ‘비어 있는 자리라면 앉으려고 한다.’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② ‘엄마’는 ‘딸’의 발화 의도를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달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사’의 발화 의도를 ‘교실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 냉방기를 꺼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⑤ ‘행인’은 ‘관광객’의 발화 의도를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 길을 알려 달라.’로 이해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담화 생산자와 담화 수용자의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찾아오시는 길’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약도’를 삽입하는 등 시각 자료를 같이 활용하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나)의 ‘국수를 먹이다’라는 비유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하는 데서 비롯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국수를 먹이다’라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

③ (가)는 결혼식에 대한 정보(결혼하는 사람, 결혼식 일시와 장소, 결혼식장에 찾아오는 방법 등)를 제공하는 기능과, 결혼식에 초대하는 상대방에게 결혼식에 참석해 줄 것(‘꼭 오셔서 축복해주세요.’)을 호소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④ (나)에서 외국인인 ‘마이크’가 자기 결혼식에 ‘마이크’를 초대하려는 ‘현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수를 먹이다’라는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관련한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3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연습하려는 곧 돌아오는 차례’를 의미하므로 시간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를 나타내고, ㉡은 ‘이전에 동작을 연습했을 때’를 의미하므로 시간상으로 과거의 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아니라 ㉡이 시간상으로 앞서 일어난 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청자(‘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은 화자(‘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므로, ㉠과 ㉡은 모두 ‘윤미’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고 있다.

② ㉢은 화자(‘승아’)가 자신이 동작을 직접 취하면서 발화한 것에 해당한다.

③ ㉢은 청자(‘승아’)의 동작을 나타낸 것에, ㉣은 화자 자신(‘윤미’)의 동작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⑤ ㉠과 ㉡은 모두 ‘승아’가 연습하는 동작을 가리키고 있다.

## 04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대응 표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여기’는 화자가 위치한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의 ‘그렇다’는 앞 문장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를 다시 가리키는 대응 표현이다. ㉢의 ‘그’는 뒤 문장의 ‘자신과 전 세계를 모험할 영웅’을 미리 가리키는 대응 표현에 해당한다.

## 05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접속 표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이므로, ㉡이 화자가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가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내가 지금 놀러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숙제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렇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숙제는 다 마쳤지만 (어머니의 말씀 외에도) 지금 놀러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에는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가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놀러 가는’ 행동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숙제를 다 마치면 놀러 갈 수 있고,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놀러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④ ‘그런데’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이므로, 앞뒤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것은 의외의 일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을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인 ‘그런데도’로 바꾸어 쓰면 ㉢에 함축된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⑤ ㉢에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과 ‘시험 합격’을 상반되는 내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문법 09

본문 265~268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③